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2,382천km ²	GDP	2,067 억 달러(2012년)
인구	36.49 백만명(2012년)	1인당 GDP	5,664 달러(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lgerian Dinar(A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74.38 (2012년)

- 알제리는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경제대국임.
- 1999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09년에 3선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회교 무장단체에 대한 사면과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등 그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2011년 1월에 고실업률 및 물가상승 등에 항의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비상사태 해제 조치, 경제적 유화정책 발표 등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고 무마되었음.
-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 상황이 좌우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원유생산량 증가와 농작물 작황 호전 등으로 평균 2~3% 대의 안정적 성장

- 알제리는 석유산업과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성장은 국제 유가와 원유 생산량, 강수량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석유산업은 GDP의 36%,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8.6%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은 밀, 보리, 감자, 콩 등이 주산물로 GDP의 12%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인구의 25%가 종사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유가상승 및 원유생산량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 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2.4%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경제성장률도 원유생산량 감축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4%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는 원유생산량 증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2.4	2.4	3.4	2.4	2.4
재정수지/GDP	9.0	-5.7	-0.6	-0.2	-2.0
소비자물가상승률	4.9	5.7	3.9	4.5	5.5

자료: IMF, EIU.

□ 국내수요 증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상승 추세

- 소비자물가는 국내수요 증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음. 2011년에도 원유 및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높은 실업률 등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진정을 위한 공무원 임금 인상 조치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4.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주요 곡물 수입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가뭄에 따른 곡물 수입 가격 상승으로 5.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사회 불안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 상승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에서 전 부문 근로자들로 확대하였음.

□ 재정수지는 2009년에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로 적자 전환된 이후 적자 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시 흑자, 하락시 적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하락 하면서 GDP 대비 5.7%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후, 2010년에는 유가 상승과 원유생산량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0.6%로 대폭 축소되었음.
- 2011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경제 유화책 시행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고유가로 인한 원유 생산·수출량 증가로 적자폭은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0.2%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원유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원유 수출 수입(收入)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2.0%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의존적인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산업다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산업이 총 GDP의 36%, 재정수입의 70%, 총 수출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임.
- 석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의 약 96%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원유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현재는 그 비중이 약 99%에 달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

- 알제리는 2012년 확인 매장량 기준 122억 배럴의 원유(세계 점유율 0.9%, 세계 15위, 아프리카 3위)와 159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2.4%, 세계 9위, 아프리카 2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알제리는 OPEC 회원국이자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회원국임.
- * GECF는 천연가스생산국들의 모임으로 OPEC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며, 200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2008년 정식기구가 되었음. GECF 가입국은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이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아연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다. 정책성과

□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0~14년) 시행중

- 정부는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국가개발 5개년 계획(2,860억 달러 예산 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비석유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진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동차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Renault사와의 자동차 합작공장 설립(약 13억 달러 규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국 생산 비율을 20~25%에서 60%까지 증대할 계획임.
- 섬유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가죽제품 생산에 300억 디나르, 섬유분야에 200억 디나르 등 500억 디나르(6.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또한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아파트·빌딩, 수력발전소, 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임.
- 이로 인해 250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중기적으로 10만 개 신규 농장 개발을 통한 30만 명의 고용창출도 계획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원유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

-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 증대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에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와 식료품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원유 수출 증대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도 동 추세가 지속되어 상품수지 규모는 약 26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 상 수 지	34,452	411	12,131	19,623	20,617
경 상 수 지 / G D P	20.1	0.3	7.5	10.0	6.2
상 품 수 지	40,520	7,784	18,204	28,470	30,890
수 출	78,590	45,186	57,090	72,660	76,526
수 입	38,070	37,402	38,886	44,190	45,636
외 환 보 유 액	143,544	149,347	162,915	183,122	191,043
총 외 채 잔 액	6,210	7,368	7,211	6,072	4,159
총 외 채 잔 액 / GDP	3.6	5.3	4.5	3.1	2.8
D S R	1.4	2.0	1.0	0.8	1.2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기초를 지속하고 있음. 2011년에는 경상수지가 GDP 대비 10%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서비스·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전년 대비 축소된 6.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소득수지는 외국 기업들의 이익금 송금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지도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 증대로 적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오일머니 유입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 보유

-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말 1,910억 달러에 달함.
- 정부가 유가상승에 따른 이익 초과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등 대외부채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3년에 GDP 대비 34.6%를 기록하였던 총 외채잔액은 2008년 이후 3% 대를 유지해 왔으며, 2012년 말에는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D.S.R.도 2%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정권기반 강화

-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국민통합정책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2009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어 3선에 성공하였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및 대통령의 권한 강화, 총리제 도입, 여성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3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국방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젊은 장교들과 친위세력을 군 요직에 전면 배치하는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정치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2012년 총선에서 여당 승리, 정치적 안정 지속

- 2012년 5월에 시행된 총선에서 총 462석의 의석 가운데 여당인 국민자유전선(FLN)이 208석을 차지하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 한편, 여성위원이 전체 의석 중 125석(31.4%)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 2007년 총선의 8%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로 2008년 11월 헌법 주요 개정 사항인 여성의 정치적 권리 확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 지속으로 치안 불안

- 알제리에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AQIM(Al-Quidain Islamic Maghreb)이 활동하고 있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진압 등에 힘입어 과격 이슬람 단체의 무장투쟁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4월에도 AQIM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5월에 AQIM은 빈라덴 사망 1주년과 총선을 전후하여 알제리 동부 부메르데스(Boumerdes)와 부이라(Bouira) 지역을 중심으로 폭탄 테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수십 명이 사상한 바 있음.
 - 2013년 1월에도 AQIM에 의해 자행된 리비아 국경의 인아메나스(In Amenas) 가스전 테러로 외국인 인질 수십 명이 사망하였으며, 유사한 소규모 테러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인근 일대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실정임. 또한 4월에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진 Medea주에서 주지사를 겨냥한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국가 전역에 테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1년 초에 반정부 시위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사태 수습
- 2011년 1월 초부터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분신자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2월에는 2천~5천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음.
 - 그러나 시위사태 발생 직후 정부가 풍부한 석유재원을 바탕으로 식료품 보조금 확대, 공무원 임금인상, 기업인에 대한 면세혜택,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경제유화책 등을 발표한 것이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1년 2월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반영하여 19년 간 지속되어 온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였으며, 야당세력의 분열, 강력한 치안조직, 막강한 군부의 영향력, 오랜 독립전쟁과 내전 경험으로 인한 국민들의 무력충돌 회피 심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 * 1954년부터 1962년까지 7년 간 지속된 독립전쟁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990년대의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국민들은 무력충돌과 사회급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시위는 석유부문 종사자, 공공보건 근로자, 통신업계 종사자, 소방관, 대학생, 종교지도자, 실업자*, 의사 등이 임금 인상, 근로조건개선, 관련대책 마련 등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전개하였음.

* 공식적으로 실업률은 10% 수준이나, 총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이 30%에 달함을 감안할 때 실업대책 등 정부의 경제지원책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정부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경제협력 및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 위주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알제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11 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강화되었음.
- 현재 EU의 천연가스 수입량의 30%를 알제리가 공급하고 있어 EU와의 관계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과거 식민지배국이었던 프랑스는 알제리의 최대 교역대상국('11년 기준 알제리 수출의 9.4%, 수입의 15%)으로서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국가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1994~96년에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에서 129억 달러의 외채에 대해 리스케줄링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고유가 지속으로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외채상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특히 2006년에 100억 달러의 외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외채규모가 GDP의 5%를 밑도는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3. 4)	B2 (2011. 5)
OECD	3 (2013. 1)	3 (2011. 3)

- OECD는 2012년 3월 평가회의에서 알제리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3등급으로 유지하였음. 알제리는 2005년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이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 Moody's, Fitch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알제리에 대한 신용등급은 아직까지 없음.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제약조건 있음.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년 1월 15일(북한과는 1963년 4월 18일 수교)

□ 주요협정: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7), 문화협정(1997),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1999), 이중과세방지협정(2001), 해상운송협정

(2003),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사증면제협정(2005),
형사사법공조조약(2006), 범죄인인도조약(2007), 항공업무협정(2009)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교역규모는 14.3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11.3억 달러, 수입은 석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3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기업의 알제리 건설 수주 증가 전망

○ 최근 우리 건설업체들은 알제리의 발전·정유·주택건설 등의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알제리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수력발전용 댐, 담수화 설비, 도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진출은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연도별 우리기업의 알제리 건설 수주 현황 : 8건, 156,849천 달러('10) → 9건, 438,611천 달러('11) → 15건, 2,758,138천 달러('12)

<표 4> 한·알제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출	1,495,609	1,122,237	1,130,709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
수입	286,903	130,428	302,033	원유, 석유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2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32건, 204,585천 달러

○ 최근 대 알제리 투자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8만 9천 달러와 5만 6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건설업임.

V. 종합 의견

□ 알제리는 원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산업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진흥 등을 목표로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임. 2013년에는 원유생산량 증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는 2011년 초에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으나, 시위대의 추진력 부족 및 정부의 강온 정책으로 사태가 수습되었음. 2012년 5월 총선에서 여당인 FLN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정치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테러위협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
- 총외채잔액 대비 높은 외환보유액, 낮은 D.S.R.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채상환태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